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도심 횡단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 예술인들. 왼쪽부터 김기원·이당금·이현기·김미영·김종필·양태훈씨.

/김진수기자 jeans@

“지역 예술인-문화중심도시사업 연결고리 됐으면”

아문단 '도심횡단 프로젝트' 참여 광주 아티스트

‘광천시민아파트로 가.나.다’ 객 아닌 주체 참여

어떤 공간에 의미 주고 이야기 발굴해 작품으로

기존에 접하지 못한 낯선 장르라 힘들기도 했다. 행사의 주 공간인 광천시민아파트 주민들과 살가워지는 것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작품을 생산해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물론 작품의 완성도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무엇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객(客)이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프로젝트였다. 행사가 끝나고 “따뜻한 커피 한잔씩 마시라”며 할머니가 찻지도를 줄땀 행복하기도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아시아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 '도심횡단 프로젝트-광주' 중 '광천시민아파트로 가.나.다'에 참여

한 7명의 지역 아티스트들을 만났다. 연극인 이당금(44), 이현기(47) 양태훈(42), 김종필(42)·국악 작곡가 김미영(44), 다큐멘터리 영상감독 최성욱(39), 국악 작곡가 이기원(34)씨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추진단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지역 공연예술 분야 아티스트들은 거리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간간히 외지 단체들과 진행된 협업을 제외하고 프로젝트 초기부터 결합해 작품을 만들 어낸 적은 거의 없었다.

이들은 “5월 작업들을 많이 해오기는 했지만 광주라는 도시를 진정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문에 보면 대답을 하기 어려웠던 시점에 ‘도시 횡단’

이라는 단어에 꽂혀서’(이당금),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거리극’에 관심이 많아서’(김종필·양태훈) 등 다양한 이유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예술인들과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씨앗,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광천동 프로젝트는 관객들이 예술가들을 따라 공간을 이동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장소특정형 공연이다. 광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르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아파트 텃밭이 연극의 무대가 되고, 누군가의 집과 계단은 아파트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만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됐다.

옥상과 아파트 마당에서는 변사극과 연주회가 펼쳐지고, 배우들은 아파트 곳곳에 숨어 연기를 펼쳤다.

“어떤 공간에 의미를 주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데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협업 과정

도 의미있었구요. 이런 프로젝트가 단발로 그치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뿐 아니라 더 많은 지역아티스트들이 어우러지면 좋겠구요. 추진단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팀들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같은 걸 기획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현기)

전주에서 활동하는 이기원씨는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이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이곳뿐 아니라 시간이 관통한, 광주의 야사(野史)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공간은 다 가능성이 있죠. 그 곳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작가구요. 지역작가들만’만’의 작업도 좋지만 외부작가들도 함께 결합하는 게 필요해요. 전주 남부시장 프로젝트도 지역작가들만 참여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가 나오기 힘들었다고 봐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공연 예술인과 추진단이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 초창기인 2003

년, 많은 기대를 갖고 추진단과 함께했던 이현기씨는 “어느 순간부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자꾸 뭔가 ‘블라인드’가 쳐지는 것 같아 이후 관심을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솔직히 추진단 사업이라 참여할까 고민이 많았어요(웃음). 하지만 꼭 하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단조가 되서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이제는 지역작가들이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많은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광주의 특별한 공간들에 담긴 작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다양한 장르와 결합도 하며 열정적으로 작업하는 게 필요하죠.”(이당금)

연출을 맡았던 이당금씨는 “비슷한 형태로 전일발당을 활용했던 서울팀의 ‘유랑축제’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세련되게 풀어내는 점을 보고 공부도 많이 됐다”며 광주와 지역, 중앙을 아우르는 예술인들과 결합해 좋은 작품을 생산해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백범 김구 생애·독립운동 발자취

760여장 사진 수록 ‘사진자료집’ 펴내



부인 최준례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와 항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자료집이 나왔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백범학술원, 백범김구기념관은 3·1절과 백범김구기념관 건립 10주년을 맞아 ‘백범김구사진자료집’을 펴냈다. 자료집에는 협회와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진씨가 소장한 사진을 비롯해 760여 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1876'1919),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1919~1945) 등 시대순으로 사진을 정리해 담았다.

파란만장했던 김구 선생의 일생

은 물론 한국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인 1906년 황해도 장연 광진학교 교사 시절의 사진, ‘대한민국 원년(元年)’이라는 연호가 표기된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사진, 부인 최준례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서거 직후 사진, 효창원 안장 사진 등 희귀 사진을 대거 수록했다.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흥커우(虹口)공원 의거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김구 선생을 도운 중국 처녀 백사공 주아iba오(朱愛寶)의 사진도 실려 있다.

/연합뉴스

열린 소통 인문학 살리기

문학동네-연세대, 민음사-서울대 총서



‘인문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출판사와 대학이 손잡고 잇따라 총서 발간에 나섰다.

26일 출판계에 따르면 문학동네는 연세대 인문학연구원과 손잡고 인문교양 총서 ‘위대한 순간’을 향후 10년에 걸쳐 펴내기로 했다.

1차분으로는 윤해준 영문과 교수의 ‘바로크와 나의 탄생’, 정진배 중문과 교수의 ‘장자, 순간 속 영원’, 김동규의 ‘철학의 모비딕’ 3권이 발간됐고 내년까지 30권 분량으로 출간된다.

민음사는 서울대와 함께 인문학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민음사는 발전 기금 2억원을 쾌척해 2010년부터

매달 서울대에서 무료로 강좌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강좌 내용을 엮어 ‘서울대 인문 강의 총서’를 펴냈다.

1차분으로 ‘청나라, 카메라의 제국’ 등 3권이 나온 데 이어 올해 하반기 2차분으로 ‘건륭제와 궁정 회화’(장진희) ‘훈민정음’(김주원) 등 모두 32권이 나올 예정이다.

현암사는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와 손잡고 지난해 5월부터 ‘우리시대 고전읽기/질문총서’를 펴내고 있다. ‘타자로서의 서구’(임옥희) 등 지난해 1차분으로 3권이 나온 데 이어 모두 50권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합뉴스

시인 조대현, 등단 후 20년만에 ‘도시인’ 출간 “오래 된 빛 같고 난 기분”

첫 시집 ‘도시인’(화남출판사)을 펴낸 목포 출신 조대현(54·사진)시인의 삶이 이채롭다. 그는 대학을 졸업 후 전화국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하고, 지금은 조정 관련 사업을 한다. 92년 동인지 ‘청호문학’과 ‘문화과학상’으로 등단했지만 이후

시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외형상 시를 떠나 있었지만 그의 내면엔 늘 시적 감성이 흐르고 있었다. 20년만에 펴낸 시집에는 시를 향한 열정과 타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오롯이 담겨 있다.

발문을 쓴 이승철 시인은 “그리

움으로 표상되는 원동력은 시적 사유의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며, 귀향으로 대변되는 고향의식과 맞물려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했다.

‘도시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는 도시적 삶, 자본주의적 삶에 대한

비판이 주체다. 도시에서 “외줄 사다리를 타고” “가면을 걸친 채” 살아야 하는 현대인을 향한 위로와 자성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그동안 써 두었던 작품들을 갈무리하는 심정으로 수정했다. 시를 쓸 때는 막막하고 버겁지만 이제야



오래 된 빛을
갖고 난 기분이다.”

그는 오십줄 지천명에 이르면 조금은 당당해질 것 같은데도, 여전히 세상살이가 부끄럽다며 목소리를 낮췄다.

/박성천기자 skysky@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525-4835 송정역 941-3278	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 출발일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 여행비 68,000원 여행코스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 특전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세트 증정(15,000원 상당)	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 출발일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 여행비 37,000원 여행코스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황산공원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
---	---	---

아이엘리시아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주류서비스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Be natural Be delicious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	--	---